

33 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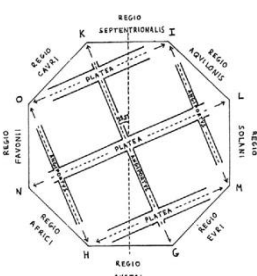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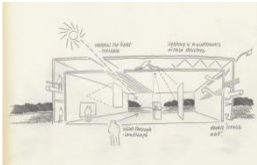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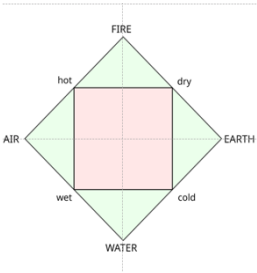
불, 흙, 물, 공기 그리고 건축

건축은 스스로 작은 세상의 구축이기도 하다. 건축물은 흙과 같이 단단한 재료로 지어지고 공간 내부에는 다시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따뜻한 불이 유입된다. 채워진 구축(construction)과 비워진 공간(space)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환경을 생성하며 인간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특정한 감각과 감정을 유발시킨다. 세상을 이루는 근본 요소(불, 흙, 물, 공기)의 관점에 입각해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건축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한다.

강연자	남성택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일시	2024. 10. 31 (목) 10:30 ~ 12:00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강연명	공기와 건축
강연개요	숨을 쉬어야 함은 모든 생명체들의 숙명이다. 건축도 이와 다르지 않다. 폐쇄적인 은닉처로 구축된 건축은 신선한 공기가 내부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항시적인 개구부를 마련해야 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창문의 역사'가 '건축의 역사'와 다를 바 없다고 단정했다. "최대한의 공기, 최소한의 재료"를 지향하며 발전해 온 열린 공간의 건축은 비눗방울이나 구름처럼 가볍고 부유하며 변화무쌍한 공기 자체를 닮은 건축으로 나아간다.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드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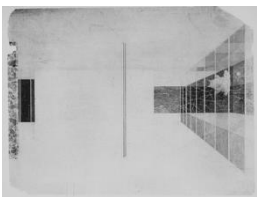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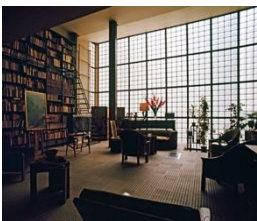


- **01. Air and Qualities/공기와 성질**
- 아낙시메네스(c. 586 BC - c. 526 BC), 근본요소는 공기
- 엠페도클레스 (c. 494 BC - c. 434 BC), 4 원소: 흙, 물, 공기, 불
- 플라톤 (c. 428 BC - c. 348 BC), 4 원소와 기하학: 불/정사면체, 공기/정팔면체, 물/정이십면체, 흙/정육면체
- 아리스토텔레스 (384 BC - 322 BC), 4 원소와 성질: Hot/온 vs. Cold/냉 Dry/건 vs. Wet/습
- Norman Foster/포스터, Sainsbury Centre for Visual Arts/세인트버리 시각예술 센터, 1978
- Le Corbusier/르 코르뷔지에, "History of Window/창문의 역사", 1926

- **02. Air and Healthy Life/공기, 건강한 삶**
- Vitruvius/비트루비우스: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네 가지 원소, 즉 열(heat/불)과 습기(moisture/물), 흙(earthy)과 공기(air)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에서는 이들 네 가지 원소를 적당한 분량으로 혼합함에 따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이 각기 다른 성질과 부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 "성벽을 전부 축조한 후 [...] 기후조건에 맞추어 대로, 소로의 방향을 결정한다. [...] 소로에서 부딪쳐 오는 바람이 없으면 방향을 옳게 정한 것이다. 찬바람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열풍은 괴로움을 끼치며 습기가 있어 축축하면 건강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 주택은 외부의 바람은 차단시켜 보통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장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사람의 경우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 비트루비우스, 도시계획과 바람
- The Tower of the Winds/바람의 탑, The Roman Forum, Athens/아테네, c. 50 BC; Sandro Botticelli/보티첼리, The Birth of Venus/비너스의 탄생, c. 1484-1486; Toyo Ito/도요 이토, Tower of Winds/바람의 탑, 1986
- 서울, 공기오염; Nausicaä of the Valley of the Wind/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1984; Daan Roosegaarde/단 로세하르데, Smog Free Tower, 2015: "진정한 아름다움은 루이 비통 가방이나 페라리가 아니라 깨끗한 공기, 깨끗한 에너지이다."

- **03. Light, Air and Sun/빛, 공기, 태양**
- 산업혁명과 공기오염; 노동계층의 주거 환경 열악; Sigfried Giedion/기디온, Befreites Wohnen: Licht, Luft, Offnung/해방된 주거: 빛, 공기, 개방, 1929; 독일 가든시티: "Licht, Luft, Sonne/빛, 공기, 태양"
- Davos/다보스 일광욕장: Youth, Film, 2015; Alexander Spengler/스팽글러 (1827-1901), Davos/다보스 개발 (with Willem Jan Holsboer); Schatzalp/샤츠알프, 1898-1900, Sanatorium/사나토리움 (결핵 치료 공간인 일광욕장); Herzog & de Meuron/헤르조그 & 드 므론, Schatzalp Project/샤츠알프 증축안, 2003-2005; Leysin/레쟁: Grand Hôtel/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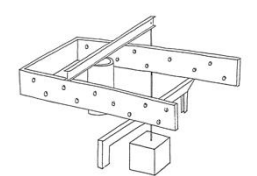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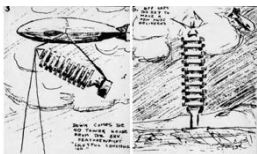


호텔, Leysin/레쟁의 첫 사나토리움, 1892; Auguste Rollier/롤리에, Heliotherapy/일광욕요법

- 근대건축: Jan Duiker/뒤커, Zonnestraal Sanatorium/존느스트랄 사나토리움, 1926-1928; Open Air School/오픈 에어 스쿨, 암스테르담, 1927; MVRDV, Villa VPRO/빌라 VPRO, 1994-1997; Alvar Aalto/알토, Paimio sanatorium/파이미오 사나토리움, 1929-1932; Le Corbusier, Villa Stein/슈타인 주택, Garches/가르슈, 1927; Villa Savoye/사보아 주택, Poissy/포아시, 1929-1931; Villa Ozenfant/오장팡 주택, Paris, 1923

- **04. Air and Transparency/공기와 투명성**

- Joseph Paxton/팩스톤, The Crystal Palace/수정궁, London, 1851
- Bruno Taut/브루노 타우트, Glass pavillion/유리관, 쾰른, 1914; Pierre Chareau/피에르 샤로, Maison de Verre/유리주택, Paris, 1932
- Fantastic 4/판타스틱 포, Film, 2005. 인비저블 우먼 (air), 휴먼 토치 (fire), 미스터 판타스틱 (water), 싱 (earth); Marcel Duchamp/뒤샹, Air de Paris/파리의 공기, 1919/1964
- Sigfried Giedion/기디온, Space, Time and Architecture, 1941; Henri Labrouste/라브루스트, 파리 국립도서관, 1854-1875; 기디온: “철재 바닥판은 빛이 각 층의 모든 부분에 침투할 수 있게 해준다.” [...] “철재 바닥판을 통해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 열린 디자인의 바닥판들은 증기선의 기관실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것들은 순전히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의 싹을 담고 있다.”; 에펠탑, 기디온: “건축가나 화가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깨닫기 십여년 전에 여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점과 내외부 공간의 상호 침투를 경험했다.”
- Walter Gropius/그로피우스, Fagus Werk/파구스 공장, 1911; Bauhaus Building/마우하우스 학교, Dessau/데사우, 1925-1926
- Sigfried Giedion/기디온, Bauen in Frankreich, Bauen in Eisen, Bauen in Eisenbeton/프랑스 건축 [...], 1928: “최대 공기, 최소 벽”, [...] “코르뷔지에의 집은 공간도 플라스틱도 아닌, 공기가 흐르는 집이다! 공기가 구성 요소가 된다! 공간도 조형 형태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관계와 상호 작용만이 중요하다! 분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공간만 존재한다. 껍질은 내외부 사이에서 사라져 버린다.”
- 투명성 논쟁: Pablo Picasso/피카소, L'Arlésienne/아를르의 여인, 1911-1912; Colin Rowe/콜린 로우 & Robert Slutzky/슬러츠키,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투명성: 직설적, 현상적", 1955-1956 년 집필, 1963 년 잡지 Perspecta 게재
- Ludwig Mies van der Rohe/미스 반 데 로헤, Project for Skyscraper/마천루 설계안, Friedrichstrasse/프리드리히슈트라세, Berlin, 1921; 미스: « 유리 모형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 중요한 것은 반영의 효과였으며, 전통적 건축에서 볼 수 있던 빛과 그림자의 효과가 아니었다.»; Barcelona Pavilion/바르셀로나 파빌리온, 1929; Villa Tugendhat/투겐트하트 주택, 1929-1930; Farnsworth House/판스워스



주택, 1945-1951; Philip Johnson/필립 존슨, Glass House/글래스 하우스, New Canaan, Connecticut, 1945-1949

- Werner Sobek/소벡, House R 128, 1999-2000; Alberto Campo Baeza/캄포 바에자, Casa Rufo/루포 주택, 2013
- Atelier Sejima/세지마, Park Café/파크 카페, 1996-1998; Ryue Nishizawa/니시자와, Moriyama House/모리야마 주택, 2005; SANAA, Glass Pavillion, Toledo Museum of Art/톨레도 미술관 유리 파빌리온, 2001-2006; Shigeru Ban/시게루 반, 커튼 월 주택, 1995;
- Herzog & de Meuron/헤르조그 & 드 므론, 도쿄 프라다, 2000-2004; 리콜라 마케팅 빌딩, Laufen, 1997-1998
- Doug Aitken/두그 아이트켄, La maison-miroir/거울-주택, Gstaad. 위장

05. Light and Nomad/가벼움과 유목건축

-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건축을 향하여, 1923, "보지않는 눈 II. 비행기"; Pilotis/필로티: 주택 시리즈 시트로양(Citrohan), 1920-1927: "자동차 같은 주택"; Maison Weissenhof/바이센호프 주택, 1927; «Petite maison/작은집», Corseaux/코르소, 1925, "호주머니 속 평면"; Lina Bo Bardi/리나 보 바르디, 유리주택, 1951; Lacaton & Vassal/라카통 & 바살, Casa D, Arcachon, 1996-1998; Go Hasegawa/고 하세가와, Pilotis in a Forest/숲속 필로티, 2009-2010
- Archigram/아키그램, Living Pod/리빙팟, 1966; Seaside Bubbles/시사이드 버블, 1966; Walking City/워킹 시티, 1964
- Buckminster Fuller/버킨스터 풀러, Dymaxion bathroom/다이막션 욕실, 1937; Dymaxion House/다이막션 주택, 1929; 4D Tower, 1927; Dymaxion (Wichita/위치타) House, 1945; Ger/게르 (Yurt/유르트)
- Reyner Banham/밴햄, «A Home is Not a House », 1965; Lacaton & Vassal/라카통 & 바살, Maison à Coutras/쿠트라 주택, 2002; Peter Zumthor/쥔토르, Sound Box/사운드 박스, Swiss Pavillion, 2000 World's Fair, Hannover/하노버, 1997-2000
- Up/업, Disney-Pixar, Film, 2009; Fuller/풀러, Geodesic Dom/지오데식 돔 (최소 부재, 최대 부피), 1954 (Flying-Delivered by Helicopter/헬리콥터 운송); Montreal Biosphere/몬트리올 바이오스페어, Expo 1967
- Rem Koolhaas/렘 콜하스, 서펜타인 갤러리, 2006; 프라다 트랜스포머, 2009; Theo van Doesburg/반 뒤스부르크 & Cornelis van Eesteren/반 에스테렌, Atelier d'artiste/예술가 아틀리에, 1923; "빛, 공기, 공간"
- Koolhaas (& Cecil Balmond/발몽드), 보르도 주택, 1994-1998; 발몽드: "보르도 주택이 '날아오르도록' 해달라는 괴상한 요구" [...] "비대칭적이고 상호의존적 구조의 본성 덕분에 '날아오르게' 되었다."
- SANAA, 로잔 연방공대 롤렉스 러닝센터, 2004-2010; Christian Kerez/케레츠, Parkings/바레인 주차장, 2024; Hans Haack/하케, Blue Sail/푸른 돛, 1964-1965



- **06. Ever-changing Atmosphere/변화무쌍한 기후와 분위기**
- Correggio/코레지오, Assumption of the Virgin/성모승천 천장화, 1526-1530
- Filippo Brunelleschi/브루넬레스키, 원근투시도와 구름
- Hans Haacke/한스 하케, Condensation Cube/응축 큐브, 1963-1965
- Smiljan Radic/스밀리안 라딕, Pavilion for 23rd Chile Biennial, 2023
- Cero9, Golden Balloon/황금 풍선, ESA Pavillion Special, Paris, 2011
- Diller Scofidio + Renfro/딜러 스코피디오 + 렌프로, Blur Building/블러 빌딩, Swiss Expo 2002, Yverdon-les-Bains, 2002
- Olafur Eliasson/올라푸 엘리아손, Rainbow assembly/무지개 집회, 2016, in Leeum, Seoul